

자유언론실천재단 [보도자료]

우03041 서울시 중로구 자하문로5길 37 (필운동, 1층) · Tel 02-6101-1024 · Fax 02-6101-1025 · 홈페이지 www.kopf.kr

수 신 : 언론사 편집국장(보도국장) / 사회부, 문화부, 여론매체부

발 신 일 : 2023년 12월 20일

〈2023 자유언론실천상〉 본상에 고 김민아 노무사, 특별상에 『노회찬 평전』 집필 이광호 대표 선정

오는 12월 28일(목) 오후 5시 뉴스타파함께센터 리영희홀에서 ‘언론단체 합동송년회’와 함께 시상식

1. 국민의 알 권리 제고와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는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자유언론실천재단(이하 재단, 이사장 조성호)은 매년 연말 언론운동과 언론활동을 통해 자유언론실천에 기여한 이에게 〈자유언론실천상〉을, 언론운동을 하다 피해를 입거나 자유언론실천을 위해 노력한 언론인과 그 가족 및 시민을 대상으로 〈언론운동기금·장학금〉을 수여합니다.

3. 재단은 지난 12월 19일(목) 심사위원회(김동현 신홍범 유숙열 임나혜숙 김용만 신미희 박강호)를 열고 제7회 〈자유언론실천상〉 본상 수상자로 고 김민아 노무사(법무법인 도담 소속,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조직부장)를, 특별상 수상자로 이광호 도서출판 레디앙 대표를 선정했습니다. 제8회 〈언론운동기금·장학금〉 수상자는 추천된 후보가 없는 관계로 올해는 수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4. 본상 수상자인 고 김민아 노무사는 만 44세의 나이로 지난 12월 7일 영면에 들기까지 언론노동자의 벼로서, 단 한 번도 사측을 대리한 적 없는 노무사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2012~2014년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언론탄압 정국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정권의 KBS·MBC·YTN 등 언론탄압에 맞선 파업투쟁 등에 함께하면서 고군분투 했습니다. 200명의 사원행동으로 시작해 조합원수 과반이 넘는 교섭대표노조가 되기까지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의 공정방송 투쟁에 한없는 도움을 주었고,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의 2012년 파업 정당성을 인정받고 각종 해고와 정직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을 받아내는 등 법률활동가로서 언론노동자들의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 암 재발 이후 생을 마감하기 직전까지 KBS본부, MBC본부, CBS지부, 카카오노동조합 등 언론·미디어기업 노조들의 자문뿐 아니라 청년·여성·비정규직 등 고통 받는 이들의 현장을 지켜왔습니다.

5. 특별상 수상자인 이광호 도서출판 레디앙 대표는 1989년 민주일보 경제부 기사를 시작으로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 민주출판언론노동조합의회 의장, <미디어오늘> 창간 편집국장, 민주노총 <노동과 세계> 창간 편집국장, 민주노동당 <진보정치> 창간 편집위원장, 인터넷신문 <레디앙> 창간 편집국장 등 평생을 ‘오로지 한길’ 진보언론과 노동운동, 진보정당 운동에 헌신해왔습니다. 특히 그는 올해 6월 4년여 각고의 노력 끝에 『노회찬 평전』을 내놓았습니다. 4년 내내 노회찬 전 의원의 가족, 동지, 친구들을 인터뷰하고 관련 자료 조사 연구와 집필에 온 힘을 쏟아, 사회적 불평 등에 맞서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친 노회찬의 삶을 집대성하는 한편 ‘함께 사는 세상’을 향한 노회찬의 삶과 꿈을 되살렸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노회찬 평전』은 현재 분열과 노선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진보 진영의 정치인들, 언론인들과 시민들, 노동자들에게도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하는 좋은 미디어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6. 시상식은 오는 12월 28일(목) 오후 5시 뉴스타파함께센터 리영희홀(서울시 중구 퇴계로 212-13, 충무로역 1번 출구 방향)에서 ‘언론단체 합동 송년회’와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참고 <역대 수상자 명단>

(1) 자유언론실천상

년도(회차)	수상자	소속·직위	선정이유
2017년 (1회)	(본상)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공영방송 정상화 등 시민언론운동에 헌신
2018년 (2회)	(본상) 오태훈	KBS 아나운서 (전 KBS본부 부분부장)	KBS 정상화 투쟁에 헌신
2019년 (3회)	(본상) 김준일	뉴스톱 대표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허위 조작 정보와 가짜뉴스를 바로잡는 것을 목표로 헌신적인 노력으로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로 확고히 자리잡았으며 ‘언론의 언론’으로 불리며 호평받고 있음
	(특별상) 이이슬· 장성길· 류석민	KBS부산 보도국	슈퍼타워 속에 숨은 인간의 욕망과 그 위험성에 대해 질문하고 앞으로 개발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지 방향을 제시하고 특히 미래의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대안, 공공과 시민의 역할을 고민한 점을 높이 평가함
2020년 (4회)	(본상)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힘들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언론운동 활동가로서의 쉽 없는 헌신적인 삶과, 더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언론운동 현장을 향하는 모습은 활동가의 본보기가 될 수 있음
2021년 (5회)	(본상) 조영수	민주언론시민연합 협동사무처장	18년 동안 언론운동 활동가의 한길을 걸으며, 묵묵히 표나지 않는 굵은일을 도맡아 하고 헌신적인 언론운동 활동가로서 쉽 없는 삶을 삶
	(특별상) 이정환	미디어오늘 대표	23년 동안 저널리스트로서의 한길을 걸으며 우리 사회 민주화와 언론 바로세우기에 크게 기여했고 특히 미디어오늘 사장을 맡아 언론권력 감시와 언론개혁

			이슈를 선도해 한국 언론 공론의 장으로 미디어오늘이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함
2022년 (6회)	(본상) 탁종열	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 소장	20여 년의 언론노동 운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2020년부터 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를 조직해 노동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모니터 활동을 꾸준히 해왔으며 현장 기자와 활발한 소통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저널리즘 재확립과 언론운동 방향 재정립을 모색하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강한 의지와 희생으로 성과를 내고 있음
	(특별상)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20주년을 맞는 언론인권센터의 16년 동안 한 곳에서 현재의 언론인권센터가 중견 언론시민단체로 성장하는데 중심 역할을 해옴. 언론의 오보나 선정적 보도 행태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돕는 상담과 소송 대리 등의 활동을 넘어 다양한 시민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의 실행,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 언론피해자의 실질적 구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한 감시 및 개선 방향을 이끌어내는 방향키 역할을 함

(2) 언론운동기금, 장학금

년도(회차)	수상자	소속·직위	선정이유
2016년 (1회)	이용마	MBC 해직기자	공영방송 정상화 투쟁 중 해고 후 암투병 지원
2017년 (2회)	이석만	불교닷컴 대표	꾸준한 불교계 적폐 보도 및 이에 따른 탄압에 맞선 투쟁
2018년 (3회)	이은용	뉴스타파 객원기자	부당해고 후 권력과 자본에 얽매이지 않는 보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음 (자녀 장학금 지원)
2019년 (4회)	김순애	방송기자연합회 사무국장	1988년 문화방송노조 활동을 시작으로 30여년 언론노조 및 언론단체 활동가로 살아온 한결같은 삶을 살았으며 꾸준함과 성실함, 곳은일 도맡아 묵묵히 표나지 않게 일해온 모습은 활동가들의 모범이 됨
2020년 (5회)	김병관	조선동아폐간을 위한무기한 시민실천단 단장	2020년 1월 1일부터 조선 동아 폐간을 위한 즐기찬 투쟁을 펼침. 광화문, 과천, 청와대 앞 등 하루도 쉬지 않고 싸우면서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줌
2021년 (6회)	신정자	동아자유언론수호 투쟁위원회 위원	한국 사회 언론자유와 민주화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는 삶을 보여줌. 특히 군사독재 정권의 감시와 탄압으로 온갖 고초와 생활고를 겪으면서도 표 나지 않지만 묵묵히 공동체를 위한 삶을 이어옴.
2022년 (7회)	이현재 · 이경재	고 이용마 MBC 기자 자녀	정권 교체 후 언론계 곳곳에서 언론자유와 방송독립을 탄압하는 움직임이 횡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3년 전 두려움 없이 투쟁의 대오에 앞장서다 떠난 고 이용마 MBC 기사를 다시 기억하며, 이 기자의 유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잊지 않고자 함.

(끝)